



시/리/아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

폭력으로 파괴된 나라, 시리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ACN 영국지부 소속 존 폰티팩스(John Pontifex) 홍보팀장이 말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ACN 방문단이 이곳 시리아에서 많은 이들을 만난 후 도달한 결론입니다. 시리아인들은 식량, 방한품, 의복, 임시 거처, 의약품 등을 구하려 헤매고 있었습니다.

ACN은 폭격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호물품을 어린이와 노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ACN 방문단은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에서 애니 데메르지안(Annie Demerjian)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총돌의 진원지인 알레포에서 구호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애니 수녀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식량과 식수를 구할 수 없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깃들 때 저도 덩달아 행복해 집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녀님의 이러한 구호활동은 특히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피난을 떠나 여러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알레포는 이곳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하여 여러 교회 건물들마저 파괴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연대감과 따뜻한 공감으로 시리아의 모든 이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가족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ACN 방문단은 시리아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시리아의 바램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사진: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교구 이사 아브도(Issa Abdo) 신부님으로부터 ACN 구호물품을 건네받자 할라(Hala)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납니다. 할라가 그녀의 딸 마리 로즈(Mary-Rose)와 함께 흡스의 공습을 피해 달아났을 때, 마리 로즈는 태어난 지 불과 20일 지난 갓난아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 했을 것입니다.”

엘리아 가르고스(Elia Gargous) 씨는 작은 방 하나와 욕실을 겸하는 주방 하나가 딸린 작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사촌, 조카 등을 포함해 무려 15명의 식구가 이 작은방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알누스라 전선(또는 자브하트 알누스라)의 공격을 피해 피난을 왔습니다. 이 가족의 악몽은 엘리아 씨와 그의 조카가 시리아 서부 홈스 근처로 납치당했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아 씨는 “우리는 이슬람 단체가 장악한 지역의 수도원에서 입에는 재갈이 물려진 채 포박되었습니다. 저는 성상과 성화들이 파괴되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지

켜봐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돼지들이다! 너희는 살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아 씨와 그의 조카는 개종을 거부했습니다. 올해로 스물세 살이 된 엘리아 씨의 조카는 납치되었던 경험에 대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납치범들은 매우 높은 협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금액을 구해 와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엘리아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들은 레바논의 자흘레로 떠났고, 그곳에서 ACN으로부터 임시 거처 및 식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엘리아 씨의 딸 셀린(Celine)은 필수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엘리아 씨는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는 이들을 만난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흘레-푸졸대교구장 이삼 다르위쉬(Is-sam Darwish) 대주교님께서서는 ACN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많은 난민 가정에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령한 지역을 떠나야만 했고, ACN의 지원사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지(George)를 위하여



암 투병 중인 조지는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홈스에 전쟁이 확산되자 조지는 5살 여동생 제니(Janie)와 할머니를 따라 그리스도인 계곡이라 불리는 나디아 사라 초원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고, 가족과 친지들 중 상당수는 병들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ACN에서 제공한 식량, 의약품, 의복 및 가재도구를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조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원봉사단 팀장인 28세 청년 엘리 바삼(Elie Bassam) 씨는 ACN 방문단에게 조지 가족을 만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문단은 조지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저귀 등을 준비하여 찾아갔습니다. 조지 가족을 비롯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ACN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할머니는 두 팔로 방문단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조지만 좀 도와주세요!”라고 흐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진 것이 없는 이웃들과 나눕니다.

방문단이 홈스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시리아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끝나고 지나간 홈스는 마치 영화 속 황폐화된 도시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창문은 깨져있고 거리는 잔해더미로 덮였으며 건물 벽에는 총알 자국이 빼곡히 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심장은 아직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구시가지 거리들을 지나다 보면 심하게 파괴된 성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하드 나시프(Jihad Nassif) 신부님께서서는 이곳의 성 마론 성당과 성 카르벨 성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 마론 성당과 성 카르벨 성당을 오가는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하드 신부님께서서는 바로 우리 방문단을 마중 나오는 길에도 폭탄 공격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ACN을 통해 이제 이곳 사람들은 임시 거처와 난방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오래된 성당들은 2천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려 기원후 50년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지하드 신부님께서서는 “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홈스로 부임했을 때야 비로소 미사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 때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일으킨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ACN에서 홈스의 상황을 조사한 이후 식량과 위생용품 꾸러미를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누, 칫솔, 치약, 화장지, 세제 등이 담긴 꾸러미를 남편을 잃은 여성 43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셀와노스 알네메흐(Selwanos Alnemeh) 대주교님께서 파괴된 성전 앞에서 계십니다.

홈스의 멜리트 그리스 가톨릭 성전, 6년 전 파괴된 250여 개의 교회 건물 중 하나입니다. 셀와노스 대주교님의 형제 한 분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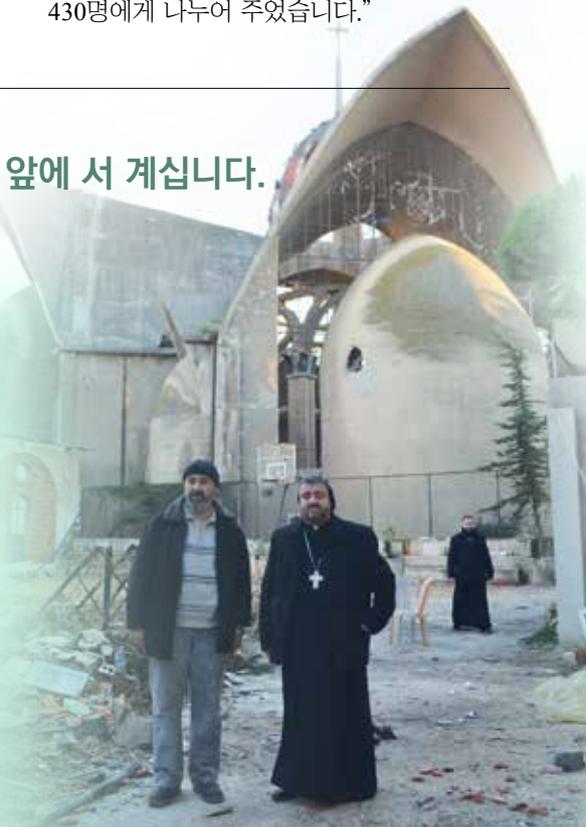
홈스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15년이 지나 그리스도교가 태동된 곳입니다. 그런 홈스에서 성전의 상당수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4만여 명 중 거의 대부분이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폭격이 잠잠해 지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ACN은

식량과 방한품 등을 제공하고, 사제들에게 미사 예물을 전달하며,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여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홈스의 건물 잔해 속에서 셀와노스 대주교님은 “저 또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린 고아였습니다. 현재 우리 곁의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잃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CN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250명의 아이들에게 의복, 식량 및 칫솔, 비누, 샴푸와 같은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애니 수녀님과 천사들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님께서서는 알레포에서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내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연료, 전기, 식량, 의료품, 임시 거처 등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가정은 모두 550여 가구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폭격과 방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에시'(IS)는 식수, 알누스라 전선은 전기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생필품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애니 수녀님과 자원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8백여 가구에 전기 공급
- 5천여 명에게 침구류 제공
- 2천5백여 켈레의 신발 제공
- 7천2백여 벌의 방한복 제공
- 아이들에게 장난감, 간식, 성물 등이 들어있는 성탄 및 부활 선물 전달

폭력은 날로 심해 가며 이곳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애니 수녀님께서서는 ACN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식수, 생필품, 식량, 위생용품 등이 시급하며 임시 거처를 임대할 비용도 필요합니다.

전쟁 발발 이전에는 20만 가구였던 이곳 그리스도인 가정은 현재 3만 5천 가구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애니 수녀님에 따르면 피난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가정들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니 수녀님께서서는 "알레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도시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ACN이 이곳을 돕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ACN 가족 여러분의 도움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편집자 주: '다에시'(Daesh)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가리킵니다. IS의 전신, ISIS를 아랍어로 옮긴 말인 '다울라 이슬라미야 이라크 샴'(al-Dawlah al-Islamiyah fi al-Iraq wa al-Sham)의 앞글자를 따와 순서대로 배열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IS라는 약어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를 의미합니다. 해당 조직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다에시(혹은 다에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CN을 통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잃은 홈스 및 인근 지역 아이들 250여 명에게 의복, 신발, 식량 및 위생용품 제공
- 홈스대교구 시리아 가톨릭 사제들에게 미사예물 전달, 신학생 6명의 생계 지원
- 알레포 난민 5천여 명에게 숙소, 식량, 의약품, 의류, 난방비, 전기 등을 제공하는 애니 수녀님의 구호활동 지원
- 홈스대교구 미망인 430여 명에게 비누 및 위생용품 제공

